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됐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간다. <법구경>

통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



정재가 기름값으로 칼칼칼 샌다

<淨財>

태양광 등 친환경 고효율 설비 확산 시급

연초부터 시작된 유가 급등으로 전국 사찰들이 겨울철 난방비 걱정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2010년 배럴당 평균 70달러 후반이었던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겨울철 난방에 많이 쓰이는 실내난방유와 보일러 등 유 모두 새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31일 1179.82원이던 실내난방유는 1월 5일 현재 1185.92원까지 올랐다. 1165.30원이던 보일러유는 1월 5일 기준으로 1173.08원을 나타내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병) 사찰에너지연구팀이 2010년 1월 발간한 '사찰에너지 사용 개선방안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찰은 1월에 가장 많은 등유를 사용했다. 이 조사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연구 기간 동안 연간 에너지 비용을 조사했다. 이 조사는 난방과 취사 등 주유도별 에너지원인 일반전력, 심야전력, 도시가스, 등유, LPG를 대상으

로 진행했다. 난방으로 사용되는 심야전력과 등유의 연간 비용은 심야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조계사가 등유 사용액만 17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같은 시기 직지사는 심야전력과 등유 사용액이 1억 700여만원, 통도사는 2억 4000여만원, 범어사는 9900여만원, 심야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도심사찰 봉은사는 91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2009년 1월의 보일러 등유 가격은 올해보다 낮은 리터당 912.10원, 2010년 1월에는 평균 1025.68원 수준이었다. 현재 유가가 당시보다 1.2~1.3배 상승하면서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각 사찰들은 난방비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수 년 전부터 대형사찰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나 태양열, 지열 등 연료를 다양화하고 있지만, 난방에 취약한 한옥 구조상 겨울철 난방비용은 사찰마다 공통된 고민거리다.

부산 범어사는 현재 심야전기를 사용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유가 상승에 상대적 부담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등유를 이용한 난방 기구도 사용하고 있어 대비책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김천 직지사는 전체 난방비의 70%를 화목보일러로 소화한다. 보일러 운영 축소와 외부 기관 지원책 마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규모 사찰인 대구 장암사도 심야 보일러를 주력 난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등유를 이용한 난방 기구도 함께 사용해 고민이 크다. 금산사와 직지사는 화목보일러를 사용 중이며 내원사는 태양열 급탕 설비, 통도사와 천곡사는 지열과 태양광 등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 중이다. 그러나 사찰들 대부분은 초기투자 비용이 높아 친환경 고효율 설비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직지사 관계자는 "좋은 설비도 효율성 검증 전에는 도입이 어렵다.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정부나 종단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신·재생 에너지 도입 타당성을 연구 중이다. 이를 토대로 사찰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음 주 계속)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또 한 번의 부처님오신날

음력 12월 8일은 또 한 번의 '부처님오신날'이다. 2500여 년 전 그 날, 부처님이 6년의 고행 끝에 홀로 깨달으며 중생 곁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불기 2555년 성도재일을 맞아 전국의 사찰은 철야경진과 특별법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로 성도재일의 의미를 새겼다. 서울 조계사는 특별히 보리수 모양의 등으로 도량을 장엄했다. 1월 11일 조계사를 찾은 불자가 등을 달고 간절한 서원을 하고 있다. <박재관 기자>

“개신교인들을 도와 달라”

세계적인 신학자 폴 니터 교수, 대구 동화사서

“땅밟기 등 불교 폄훼를 하는 개신교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다.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불자들이 도와 달라.”

불교와 개신교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기2555년(2011) 말레니엄 평화토크' 참석차 방한한 세계적인 신학자 폴 니터 교수(美 뉴욕 유니온신학대)가 한국의 불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폴 니터 교수는 구랍 31일 대구 동화사에서 진제 스님(동화사 주석)과 대담했다. 스님과의 대담 후 “불교는 왜 개신교와 대화가 어려운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니터 교수는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공인 후 로마제국과 함께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로마제국의 메시지와 동일시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로마제국이 유일한 권력으로 이해되듯 기독교도 진리를 가진 유일한 종교로 이해됐다. 로마가 세계정복을 할수록 기독교도 다른 종교를 정복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폴 니터 교수는 “오

늘날 신학자들은 예수의 본래 메시지를 통해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노력은 그리스도가 유일이라는 편협된 주장에서 벗어남을 뜻한다.

니터 교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종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 속에서 유일성을 잃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불교 폄훼 등을 저지르며) 다른 종교에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폴 니터 교수는 “보수·근본주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들이 불자를 미워할지라도 불자들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 5, 7, 8, 9면)

조동섭 기자

신상품 LED인등·전구

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자생력 길러라”

조계종과 정부가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등을 계기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윤력과 작무를 통해 자생력을 기르라”는 불기2555년(2011년) 신년교시를 내렸다. 법전 스님은 신년교시에서 “백장 선사의 윤력(運力)과 작무(作務)는 수행과 노동의 일체화로 중원(中原)의 법안 속에서 선종이 우뚝 솟은 힘이였다”며 “작금의 방편에 의탁한 '질러가는 길'만 선호하는 것은 이상(我相)의 허물만 수미산보다 높아 본래자리에서 멀리 이탈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세간법은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한다”고 강조했다.

법전 스님은 “신묘년 새해에는 이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커다란 자비심을 내어 심기일전하는 원년으로 만들자”고 거듭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ONTENTS

3 신사와 신학자 만나다



9 폴 니터 · 캐서린 코넬 부부



11 선원총무를 가다



14 법정 스님과 만난 사람들

15 前 방송인 이계진



18 특별기획

19 미얀마 난민수용소를 가다(상)



한국불교중흥 아젠다는?

조계종, 1월 27일부터 매월 대토론회 개최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1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대토론회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의 현재적 성찰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다. 발제자로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 스님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중앙총회의원 주경 스님, 고려대 조성택 교수, 한겨레신문 판

병찬 논설위원이 참석한다.

이어 2월 23일에는 '한국불교 교단과 국가'를 주제로 두 번째 대토론회가 열린다. 행사에는 백련문화재단 원택 스님이 발제하며, 도법·법안 스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3월 30일 '현대사회에서 구현해야 할 불교적 가치', 4월 27일 '생명과 생태 문제에 대한 불교적 응답', 5월 25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불교적 응답', 6월 29일 '사회 정의를 위한 불교의 자

비실천'을 주제로 상반기 행사가 진행된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한국 불교의 사명 등에 대한 진지하고 엄중한 성찰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회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자 대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문의 02-3663-6777 www.nihwa.com



謹 賀 新 年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 국 사

주 지 성 타

관 장	종 상	학 장	덕 민	선 원 장	중 우	총 무	종 천
기 획	정 문	교 무	정 수	재 무	종 천	사 회	종 민
포 교	성 요	호 법	각 천	신 도 회 장	변 영 우		

대 중 일 동

부설기관 • 본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년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지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